

# 근로자 허리 건강 지킴이로 시작된 무재해

1988년에 설립한 대경정밀은 대동공업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트랙터 미션과 앞 차축을 조립 생산하고, 불 보 중장비의 전용 구동장치 및 미국 군용트럭 자동차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품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이곳의 안전 또한 그 수준이 높아져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무재해를 달성하면서,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한다.

안전관리 우수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그 옆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추명동 부장이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었다.

## 머리말

농기계, 중장비의 금속 중량물을 취급·조립하는 공정으로 대물 운반 장비에 의한 협착, 충돌위험, 윤회유에 의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고 2004년에는 요통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과 함께 안전장치 설치, 적극적인 개선 등을 통해 3년 무재해를 지속시키고 있고, 안전관리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무재해는 근로자 허리지킴이부터 시작

모든 자재가 금속 중량물이다 보니 근로자의 허리

등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경정밀은 이른 아침부터 작업시작전 10분 이내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로 시작된다.

벌써 6년째 시행되고 있는 체조는 팀별로 자유롭게 시행되면서 대경정밀의 대표적인 안전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100인 미만 동종업계의 안전실태를 볼 때 대경정밀의 안전문화는 안정적이다. 그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근로자 자신이 체조를 안하면 작업을 못할 정도로 체조 자체에 대한 참여와 호응도 크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는 체조로 끝나 는 것이 아니다. 입사시 필수적으로 CT촬영을 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근무 중 이상을 호소하는 직원은 즉시 대경정밀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교정병원을 찾아 물리치료 및 잘못된 뼈를 바로잡아 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석 생산부장은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은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 운동방법부터 바른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바른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경영주의 안전 의식은 기업의 안전 수준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용에 민감하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 안전은 뒷전이기 일수다.

그러나 이곳 대경정밀은 근로자 8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고, 작업 공정도 안전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한 대경정밀, 무재해 대경정밀로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박헌일 최고경영주의 확고한 안전의지가 있다.

근로자가 다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재원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 안전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경정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인다는 것이 박헌일 사장이 안전을 우선시 하는 이유이다.

『실무자 입장에서 경영주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 어려움을 주게 되면 향후 새로운 업무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안전업무에 있어서는 결재 받기가 쉽습니다.』

실무자가 느끼는 것도 안전에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된 모든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한두개 이상 설치되지 않은 기계는 없고, 정확한 구획선 및 깨끗한 현장 환경,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건물 내외부 도색 및 청소는 이곳 경영주의 안전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맺음말

대경정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석 생산부장은 대경정밀이 오늘까지 무재해 기업으로 오는데

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추명동 부장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다.

생산업무를 함께하는 김창석 생산부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에 안전협회는 대경정밀의 안전에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주어 사고 없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동반자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이들 두기관의 협조체제는 최우수 안전관리 대경정밀을 지속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종덕 기자〉

### 환경개선에 더욱 신경쓸 터

안전사고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재정적 손실보다도 근로자 가족이나 기업의 구성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 김홍 관리상무

따라서 안전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이지요. 우리 대경정밀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냄새가 발생하고, 비가 오거나 대기압이 내려갈 때에는 그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팬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더군요.

앞으로 이처럼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으로 고려하여 라인을 배치할 계획은 이따문입니다.

지난해는 노동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 무재해도 달성하고 있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안전은 담당자의 요구사항과 그 이상의 사항을 즉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경정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경정밀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복지와 임금면에서 대기업 만큼은 못해도 중상 정도의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재해 대경정밀을 이끌어 준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안전한 대경정밀을 만들겠습니다.